

슬로건

자동차부품업계에
혁신적인 지원을!

- 한국자동차신문(KMN)과 함께 전진!!
-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와 동행!!
- ⇒ 우리 자동차업계 국제경쟁력 제고로 ~

한국자동차신문

KOREA MOTOR NEWSPAPER

소모성 유류인 방청액, 세척제 등 윤활유 비용 지원
생산 및 시험 측정 장비 검교정 검사 비용 지원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한
순수 비영리 기관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주간 (제17호)

자동차 부품업체 후원 비영리 신문

주간신문 : 2012년 12월 26일 ~ 2013년 1월 1일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한 업계 여러분들의 노고에 많은 선배간부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의 기관지인 한국자동차신문(KMN)이 출범하여 업계의 대변지로서, 대정부 및 정계에 대한 우리의 권익을 강력히 주장하고, 우리와 대치되는 정책들을 과감히 버리도록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효자산업이며, 선진국으로의 기반산업이며, 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최고의 중심산업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산업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는 앞으로도 세계최고라는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앞으로도 그 어떤 압력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활약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미래 후손들의 기록에 맡겨두겠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미진한 면이 조금 있었더라도 더욱더 관심과 애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더 좋은 환경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장, 한국자동차신문사 사장 허 왕 올림.

지금은 국산차 시대이다 -제1탄 외제차 비싸다고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야 ..

올해 들어 수입차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나 싶더니 12만 대 이상을 팔며 승용차 부분 점유율 10%를 넘겼다. 수입차 분야에서는 이런 성과를 자축하며 신이 나 있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가만저만이 아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수입차 가격... 수입 원가 대비 2배 이상의 경우도..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은 수입 원가가 3천8백만 원이지만 국내에서 6천9백10만원에 판매되었다. 수입사와 딜러가 가져가는 마진이 대단하다. 아우디 A6 3.0 TDI도 판매 가격은 6천7백만 원이지만 수입 원가는 4천70만 원 선이고, 폭스바겐의 폴로 2.0 TDI(3천2백60만원)는 수입 원가가 2천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형편없는 수입차 A/S 그리고 터무니없는 부품가격

BMW의 국내 서비스센터는 33곳뿐이다. BMW가 가장 많은 편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8곳이고, 폭스바겐은 21곳, 아우디는 19곳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비센터 한 곳이 감당해야 하는 차량은 무려 2천~3천대에 이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한 곳당 3천6백72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3천3백6대), 폭스바겐(2천6백77대), 아우디(2천5백8대) 순이었다.

독일 수입차의 비싼 공임료와 수리비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차 부품 가격은 국산차에 비해 5배 이상 비싸고, 평균 수리비도 3.5배가량 높다. 수입차

전면 수리비의 평균은 1천21만원으로 국산차 1백82만원보다 5.6배 높다. 후면 평균 수리비는 4백35만원으로 국산차 93만원보다 4.7배 비싸다.

그리고 수입차 수리비용이 들쭉날쭉한 것은 국산차의 견적 프로그램(AOS)처럼 신뢰성 있는 수리비 산정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산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입차의 품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품질 부분이다. 21세기가 된지 12년이 지나 지금, 아직까지도 외제가 무조건 좋은 줄로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야말로 현대판 사대 추종주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세계 3위를 지나 1위를 향해 달리고 있는 시점이다. 십 수 년 전부터 기술연구에 부단히 투자 해 온 덕분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유럽 등지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하며 거침없이 그 위상을 뽐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i30는 유럽 올해의 차 후보에 올라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실적과 재무안정성 등으로 국제 무디스 신용등급 Baa1 등급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도 40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수입차들은 품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요타와 미쓰비시의 경우 최근 엔진결함으로 수백만 대를 리콜하는 사태를 빚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리콜을 늦게 하는 바람에 174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BMW의 경우 국내에서 '비폴링'에 휩싸이며 수입 승용차들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고장 후 방문하는 서비스센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긴급 견인차가 오는 데만 보통 한 시간 이상이 걸리고 수리여부 등을 확인하

는 데만 3~4일이 소요된다. 사고나 조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시간낭비와 비용낭비는 물론 정신적인 비용까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안전도 평가에서도 일제, 미제, 유럽제 보다도 국산차가 더 뛰어난 품질 뿐 아니라 안전도 또한 국산차가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 의뢰해 평가한 안전도 평가에서 국산차는 대부분이 정면·부분정면·측면·기동측면충돌과 좌석안전성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수입차는 일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BMW의 320d와 도요타의 캠리는 좌석안전성에서 2등급을, 폴크스바겐의 CC는 부분정면충돌에서 2등급을 받았다.

보험자와 자동차가 충돌할 때 보험자가 입는 손해 정도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자 안전성 평가에서도 국산차가 57~64점 정도인 것에 반해 수입 승용차는 16~26점에 그쳐 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시대이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 자동차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있다. 수입차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아니 이제 그 빛마저 바랜지 오래다. 비싼 가격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품질, 이것이 수입차의 현주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 자동차에 대해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때이다.

그리고 비싼 것만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 비싸다고 좋아만 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Contents

- ◆ 한국 차.. 유럽을 휩쓸고 있다.
- ◆ 자동차 핵심 제조설비의 외산 의존..심각
- ◆ FTA효과 車부품 전성기...日·獨업체 한국공장 설립
- ◆ 경주시, 인도 자동차부품 시장을 잡아라
- ◆ 잘 나가는 현대·기아차 따라 '공생' 관계인 부품사들도 '미소'

2면

- ◆ 〈신차〉쉐보레 올 뉴 스타일 '2013 스팅'
- ◆ 〈자동차 역사〉대우 에스페로
- ◆ 〈자동차 이야기〉최초의 교통사고는 무엇일까?
- ◆ 〈자동차 신기술〉자동차 등화장치 진화 -3탄-

3면

- ◆ 자동차 사고이력장치(EDR) 기록 공개 의무화된다.
- ◆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후보 당선
- ◆ 원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 ◆ 18대 대선 최종 투표율 75.8%...역대 네 번째 기록

4면

- ◆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까
- ◆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반응.. 의외로 안도
-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 22일부터 적용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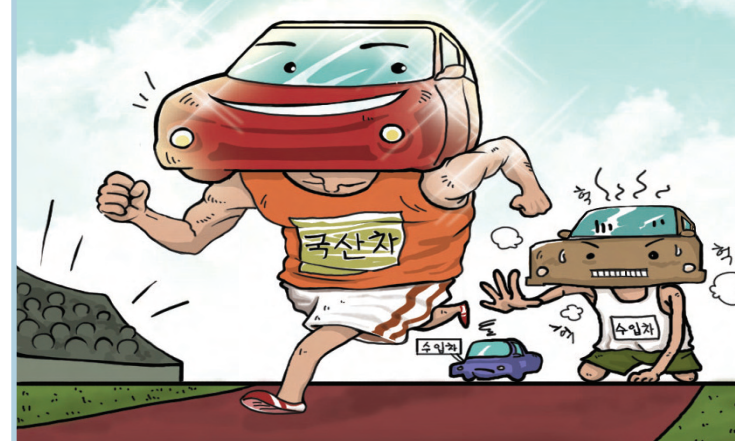
- ◆ 〈지식백과〉프로포폴(Propofol)
- ◆ 〈역사이야기〉세계 7대 불가사의 - 3탄
- ◆ 〈건강상식〉발로 보는 건강
- ◆ 〈음식〉겨울철 별미 '빙어'

6면

- ◆ 〈여행〉전남 '순천' 해돋이 여행
- ◆ 〈스포츠〉갈색 폭격기 '차범근'
- ◆ 〈문화행사〉내셔널 겨울강변축제
- ◆ 〈영화〉도심형 대형 재난영화 '타위'

7면

이제는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 전문적인 연구와 든든한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본 연구소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순수 비영리 기관입니다.

소모성 유류 구매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협력사
2. 지원품목 : 방청유, 세척제
3. 지원규모 : 최대 3억원까지 현금지원

검교정 검사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협력사
2. 지원품목 : 생산 및 시험측정장비 검교정검사 비용
3. 지원규모 : 연간 검교정검사비용 1,000만원 한도 내 40% 현금지원

Tel.1566-9901(안내) Fax. 1566-8121 E-mail : kmir@kmir.org Homepage : www.kmir.org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
Korea Motor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

- 2003.11. 현대, 기아자동차그룹,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및 관계기관(정부기관)의 협조로 설립
- 2011.08. 계열 비영리, 한국자동차신문사(KMN) 설립 및 출범.
- 2011.12.20. 한국자동차신문(KMN) 창간준비 제 1호 발행.
- 2012.05.15. 한국자동차신문(KMN) 창간.

"Welcome to KMIR"

자동차부품협력사 지원(비영리)기관



2013년도 검교정 검사 및 유류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귀사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2년 11월 1일 ~ 2013년 2월 28일

02 한국자동차신문

주간신문 : 2012년 12월 26일 ~ 2013년 1월 1일

업계소식

(제17호)

한국 차.. 유럽을 휩쓸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전체 승용차 가운데 중형급 이상 고급차 판매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10월 유럽에서 모두 24만7,000여대의 승용차를 판매했다. 이 중 중형차 이상이 2만9,000여대로 11.8%를 차지해 지난해 동기(4.4%)에 비해 7.4%포인트나 증가했다. 중형급 이상 고급차 판매비중이 10%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준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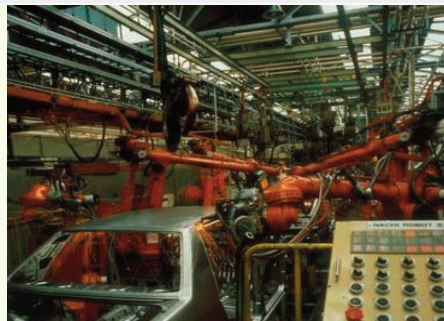
중형차 판매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자들로부터 인식되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익성 부문에서도 크게 향상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i40가 호자 역할을 했다. i40는 지난해 7월 유럽에 출시돼 1만1,777대가 팔렸고 올해는 10월까지 2만8,489대가 판매됐다.

유럽과 달리 국내와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중형 승용차 이상 판매비중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국내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승용차 판매대수 35만9,000여대 중 쏘나타 이상이 21만1,000여대 팔려 58.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6%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올해 1~11월 중국과 미국의 중형차 이상 판매비중은 각각 16.7%, 48%로 지난해 동기보다 1.3%포인트, 3.4%포인트 줄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주요 신차 출시가 소형차 부문에서 주로 이뤄진데다 경기침체와 고유가 탓에 고급차 판매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핵심 제조설비의 외산 의존..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전자 정보기술(IT)기기는 물론 자동차·선박에 이르기까지 세트 제품 제조 왕국이다. 하지만 아직 제조 핵심 인프라 측면에서의 높은 외산 의존도는 아쉬움이 자 속제로 남아있다. 최근 현대차 베이징 3공장 건설이 석 달 가량 지연된 사태가 단적인 예다. 자동차 조립라인 자

동화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한 외국계 업체가 납품 기한을 3개월 연기한다고 현대차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공장 완공이 늦어진 것이다. 현대차 중국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 조립라인이 외산 장비 하나 때문에 3개월 무용지물이 된 것도 안타깝지만, 갑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황당하다. 이 사건은 글로벌 납버원을 지향하는 한국 자동차 세트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제조 인프라의 국산화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동차 엔진 조립 및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설비는 일본·독일 등 외국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자동차산업 장비 국산화율은 50%를 넘지만 핵심 장비 국산화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몽구 회장이 직접 지시해 그룹 차원에서 핵심 장비 국산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계·장비산업은 자동차 산업 도약의 근간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부품 소재에서 설비, 그리고 세트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에서 나온다. 독일 등 제조업 강국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자동차는 명실 공히 한국의 대표 산업이다. 이제 그 세트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품·소재·설비 등 후방산업까지 확고한 경쟁력을 갖춰야 진정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성수 기자

FTA효과 車부품 전성기... 日·獨업체 한국공장 설립

지난 11일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가 잇달아 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업체뿐 아니라 세계 굴지 부품 업체들이 앞 다퉈 한국시장 투자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 4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7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공장 규모는 8만여 ㎡며 덴소는 이 공장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전장부품을 본격 생산할 방침이다.

비슷한 시간 독일 엘링크링거는 경북 구미공장 설립계획을 밝혔다. 엘링크링거는 이날 경북도와 함께 1000만 달러 규모 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처럼 외국 유수 부품 사들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한국 부품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2016년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완성차도 관세가 100% 사라지는 만큼 이를 겨냥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 공식 발효된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이 활력을 띠고 있다.

한국 부품 사들도 신규 투자에 나서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국내 부품산업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

덴소와 엘링크링거가 한국 투자 계획을 밝히던 날 국내 대표적 부품사인 현대위이는 충남도와 6000억 원 규모 투자 MOU를 체결했다. 충남 서산에 현대·기아차에 납품할 파워트레인 부품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잇단 신규 투자는 2016년을 겨냥한 의도가 강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2016년 3

월 15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관세(2.5%)가 100% 철폐되는 만큼 미국에 대한 한국 완성차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잇단 신규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덴소는 창원 공장을 통해 총 500개 이상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계획이다.

2016년을 겨냥한 투자뿐 아니라 지금 당장 한·미 FTA 특수를 누리고 있는 국내 부품사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은 지난 3월부터 관세(2.5~4% 내외)가 즉시 철폐됐다.

자동차 차체 부품인 브래킷을 만드는 신영은 지난 3월 이후 미국 수출량 증대 효과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올 한 해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6%(556만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 정도 늘어나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수출 증대 효과다.

제동·조향·현가장치를 만드는 만도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4600억 원, 올해는 6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만에 미국 적수출 물량이 30% 정도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3% 수준인 관세가 사라진 한·미 FTA 덕분이다.

현대·기아차 주요 협력사인 일진베어링도 한·미 FTA 체결 이후 회사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회사로 먼저 연락을 취해 오는 완성차 업체도 부쩍 늘었기 때문. 일진베어링 관계자는 "환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FTA 효과로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외국 완성차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한·미 FTA 효과를 보기 위해 중국 공장에서도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을 줄이고 국내 공장 생

산 분을 대미 수출용으로 늘리는 회사도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국내 자동차부품은 38억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4%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 세계에 수출한 국내 자동차부품은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강근 기자

경주시, 인도 자동차부품 시장을 잡아라

경주시는 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매 개척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첸나이)에 자동차부품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도 자동차부품 해외시장 개척단은 경주시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사전 시장성 조사를 의뢰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우수 자동차부품 업체인 명진정밀(주)의 8개 업체로 구성됐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첫날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및 인도 실폴(Sipcot)공단을 견학, 산업기반과 제품수요 등의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업체별로 사전 발굴된 인도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자사의 우수한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도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구매력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시장의 빠른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동차산업 육성책으로 최근 6년간 승용차 내수 판매는 2배, 수출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조상민 기자

잘 나가는 현대·기아차 따라 '공생' 관계인 부품사들도 '미소'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좋은 판매 실적을 보이면서 이들과 '공생'관계인 자동차 부품사들도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현대차, 기아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각각 401만대, 249만대로 총 65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705만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열린 해외 법인장 회의를 통해 내년 글로벌 판매목표를 현대·기아차 합산 750만대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중국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기아차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며 해외 완성차 업체에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일 기회도 많아져 매출 다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대형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만도 등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안정적인 성장과 원가절

감을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아웃소싱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부품사 순위에서 현대모비스는 8위, 현대위아는 40위, 만도는 50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 준공과 함께 현대모비스, 현대하이모스, 현대하이스코를 비롯, THN, 한일이화, 두원공조, 화신, 엠에스오토텍 등 8개 협력업체도 브라질에 진출하며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며 해외 법인의 매출 비중이 높은 성우하이텍과 화신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우하이텍은 63.9%, 화신은 61.7%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 차체 보강부품을 생산하는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의 유럽 시장 판매가 늘면서 자사의 체코, 슬로바키아 공장과 함께 성장했다. 또 중국과 인도 공장을 통해 GM에 부품을 공급하는 등 공급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주요 협력사 중 자동차 휠베어링을 생산하는 일진베어링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게서 많은 사업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일진베어링의 관계자는 "FTA 체결로 인해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며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납품 제의를 하고 있어 향후 현대·기아차 의존에서 벗어나 사업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진 기자

교정성적서 제1편

교정 성적서, 이제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교정성적서는 우리가 KOLAS 성적서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나, ISO-ILAC 성적서, KRISS 성적서 등 무수한 성적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ISO 규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인정된 소급성을 유지하면 자체적으로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심사원들은 심사 시에 KOLAS 성적서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KOLAS 성적서를 받기위해 수십 여일을 생산위한 제품검사 포기, 생산성 향상을 역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각 기업체의 손실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심사 시, 각 업체의 ISO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소급성을 유지시킨 자체성적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자체성적서를 인정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 차

쉐보레 올 뉴 스타일 '2013 스파크'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안전성, 개성 넘치는 디자인, 우수한 주행성능을 갖추고 경차급 이상의 제품력으로 전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스파크는 2013년형 출시를 맞아 디자인과 외장 컬러 등 외관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한국지엠 영업·마케팅·A/S부서 안쿠시 오로라 부사장은 "안팎으로 업그레이드된 2013년형 스파크는 고급감을 더한 디자인과 강렬한 인상의 루프 데칼, 그리고 새로운 컬러가 추가 적용된 스페셜 에디션으로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을 더해 개성 있는 젊은 고객층의 반응이 뜨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형 스파크의 변신은 기존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보다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한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디자인된 듀얼 메쉬그릴은 쉐보레 스타일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확대된 사이즈와 크롬 베젤로 강렬한 첫인상을 연출한다.

헤드 램프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베젤과 투톤 컬러를 적용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한 동시에 차급을 뛰어넘는 고급감이 돋보이도록 했으며 안개등과 후미등에도 한층 더 날렵한 디자인과 소재를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더했다.

또한 도어 하단부에 곡면 설계를 추가해 사이드바디 라인의 역동성과 세련미를 높인 한편 측면 오염 방지와 차체 보호, 공기저항 저감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켰고 배기구 디자인을 일반적인 원형에서 사다리꼴 형상으로 변경해 스파크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14인치 및 15인치 알로이 휠은 섬세한 디자인의 멀티 스포크 프랜지리스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전동조절 기능 및 열선이 내장된 다기능 LED 턴 시그널 아웃사이드 미러가 새롭게 적용되어 편의성과 안전성을 배가했다.

한편 차량에 개성을 더하는 바디 키트도 새롭게 디자인됐다. 동급 최초로 고급 카본 소재를 적용해 차량의 외관 업그레이드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층 넓고 안정된 차체를 구현해 스포티함을 더했다.

2013년형 스파크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세 가지 외관 색상을 새롭게 선보인다. 여성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링 컬러로 자리잡은 모나코 핑크의 뒤를 이을 허니 멜로 옐로우, 기존의 파랑색 보다 한층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블루벨 블루,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어반 티타늄 그레이 컬러는 사랑스러운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 고객들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개성을 추구하는 남성 고객들에게도 어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뒤는 개성을 어필하고자 하는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스페셜 에디션에는 씨티언 스페셜 에디션이 새로 합류한다. 씨티언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젊은 남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스트라이프 에디션에 적용되었던 후드 스트라이프 데칼과 블랙 하이그로시 스티어링 휠, 블랙 하이그로시 센터페시아, 스페셜한 화이트 알로이휠에 추가로 스포티한 루프 상단 데칼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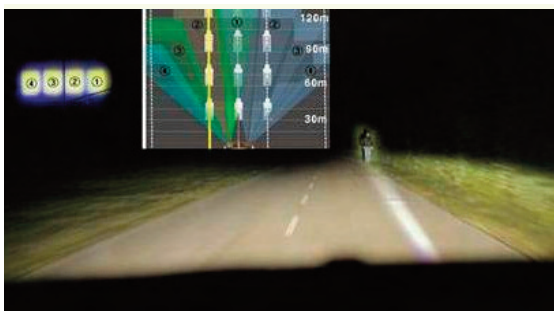
여성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타투 에디션은 기존의 화이트와 핑크 외장 컬러 뿐 아니라 허니 멜로 옐로우와 블루벨 블루 컬러를 추가해 산뜻한 외관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15인치 스페셜 화이트 휠, 귀여운 버블 패턴의 데칼과 함께 한층 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됐다.

2013년형 스파크의 가격(수동변속기 기준)은 승용밴 869만원, L 모델 917만원, LS 모델 1022만원, LS Star 모델 1108만원, IT 모델 1143만원, 스페셜 에디션 씨티언 1189만원, 타투 1193만원부터이다.

강성호 기자

자동차기술

자동차 등화장치의 진화 -3탄-



안감 및 심각한 눈부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LED 전조등

LED전조등은 2007년 6월 렉서스 LS 600h에 최초 적용되었고 국내에서는 2009년 신형 에쿠스 리무진에 적용되었다. LED전조등은 고효율, 저전력, 장수명, 디자인 우수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방열설계가 필요하고 제어가 어려우며 가격이 비싸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LED 광원개발 및 전조등 최적화 설계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LED 광원의 성능은 1W당 80~90lm으로 35W가 소비되는 가스방전식 전조등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광원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형, ADB전조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조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LED 광원은 커넥터가 결합된 2세대이다. 2세대 LED 광원은 광효율, 열적성능, 색도, 휘도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조등 제작 시 원가가 절감된다.

박민환 기자

자동차 이야기

최초의 교통사고는 무엇일까?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교통사고라는 무서운 재앙 또한 가져다주었다. 오늘날 20대, 30대,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이며, 우리나라에서만 일 년에 5,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다. 그 편의성만큼이나 상당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교통수단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교통사고는 언제 처음 일어났을까? 누가, 어떤 기종의 자동차를 타고 일으켰을까?



재밌게도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영국의 기술자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발명하여 자동차 탄생의 기초를 마련했고 프랑스에 살고 있던 니콜라 조셉 퀴노가 그 증기 기관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퀴 세 개 달린 증기 자동차를 발명하게 된다. 석탄을 뿜 때 발생하는 수증기의 압력을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한 것으로 피스톤의 상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아주 놀라운 발명이었다.

1771년 니콜라 조셉 퀴노의 증기 자동차는 4명의 사람을 태우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서게 된다. 3개의 바퀴에 커다란 보일러 통을 옆구리에 메고, 2기통의 엔진을 움직이며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불과 시속 4km

자동차 역사

대우 에스페로



2000cc 新·중형세단-ESPERO

대우 에스페로(Daewoo Espero)는 1990년 출시된 승용차로 유럽형 스타일의 외관을 가진 대우자동차 최초의 준중형차이다. 에스페로는 1986년부터 4년 동안 개발한 대우자동차의 독자적인 첫 고유 모델로 현대의 엘란트라, 기아의 캐피탈, 세피아 등과 경쟁하였다.

에스페로는 1990년부터 1996년 11월까지 546,520대가 생산되었으며 특히 같은 가격의 동급차량에 비해 편의장비가 풍부하여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특히, 에스페로의 키포인트인 공격적인 외관 스타일은 무난한 디자인에서 벗어나려는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배기량 2000cc의 스포츠 감각을 지닌 중형 세단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날렵한 유럽형 스타일을 띠고 있어 당시에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연비가 나쁘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와 낮은 기술력으로 에스페로의 깔끔한 디자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에스페로는 대우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잔고장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큰 차체와 독특한 스타일링은 아직도 에스페로를 기억에 남게 한다.

1995년에는 '에스페로 품질 평가단' 마케팅을 펼쳐 평가단 100명에게 에스페로를 한 대씩 1년간 빌려주는 체험마케팅을 선보여 판매증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 때, 품질 평가단의 95%가 에스페로를 구매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영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차를 판매하는 독특한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마케팅들은 유럽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영국의 자동차 전문지 '오토 익스프레스'에서 최우수 차로 선정되었다.

에스페로는 중형차이기 때문에 택시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1997년 2월 후속 차종인 누비라가 출시되면서 단종되었다. 뛰어난 디자인에 비해 낮은 품질로 베스트셀러가 되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긴 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켜보면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개발한 목적은 대포를 옮기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차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무거운 보일러와 실린더가 앞에 달려있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데다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최초의 자동차는 파리 교외의 언덕길에 살고 있던 귀족의 담배바를 들이받아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이 때문에 퀴노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자동차는 창고에 버려졌다. 지금은 물론 최초의 자동차라는 타이틀로 파리 공예 박물관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오직 품질향상만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든든한 지원자! 한국계량계측시험연구소!

본 기관에 의한 계량 측정기의 주기적인 교정은
여러분이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각 산업체의 실정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경쟁력 및 품질·기술력 상생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계량계측시험연구소
검교정접수 전국번호 1566-1995



자동차 사고이력장치(EDR) 기록 공개 의무화된다.



오는 2015년부터 자동차 사고이력장치(EDR) 장착 차량의 사고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급발진 차량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작사·소유자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EDR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EDR이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단 시행 시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김명진 기자

18대 대선 최종 투표율 75.8%...역대 네 번째 기록



제18대 대통령선거 최종 투표율이 75.8%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70%대를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투표를 마감한 결과, 총 선거인수 4050만7842명 가운데 3072만3431명이 투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때의 80.7%보다 4.9%포인트 낮지만, 2002년 제16대 70.8%, 2007년 제17대 63.0%보다 각각 5.0%포인트, 1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13대(89.2%), 14대(81.9%), 15대(80.7%)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0.4%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72.9%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75.2%, 경기도가 74.9%를 기록해 최하위권은 벗어났다. 이의 지역들은 대구 79.7%, 울산 78.5%, 경북 78.2%, 경남 77.0%, 전북 76.6%, 대전 76.5%, 부산 76.2%, 충북 75.0%, 세종 74.1%, 인천 74.0%, 강원 73.8%, 제주 73.3%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 간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 양측 지지층이 확고하게 결집한데다 막판까지 접전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적극 투표층이 많은 '5060' 세대 유권자 수가 많아진 것이 투표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기수 기자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후보 당선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보수 대 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이어 보수정권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첫 부녀 대통령이 됐다.

박 당선인은 1577만 3128표(51.6%)를 얻어, 1469만2632표(48.0%)를 얻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3.8%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당선인은 밤 11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경북·경남 등지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 박 당선인을 앞섰지만 1위와의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앞서 방송 3사는 투표 마감 직후인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 예상 득표율이 박근혜 후보 50.1%, 문재인 후보 48.9%라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75.8%로 집계돼 16대, 17대 대선보다 높았다. 1987년 치러진 직선제 이후 하락하던 투표율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하는 등 대선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진 때문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야권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75%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도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정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 보수층이 굳건하게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밤 10시40분께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와 영등포 당사로 이동해 개표 상황을 지켜본 뒤 "참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다.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지지자들에게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광화문으로 이동해 당선 인사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라 생각한다. 선거기간 중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 여러분이 기대하던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 민생, 약속, 대통령 대통령,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머니의 뒤를 이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다 1979년 아버지의 서거로 청와대를 나온 지 34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된다.

박 당선자는 20일 아침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박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원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은 위험하고 두렵다는 현실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각종 비리에 휩싸인 채 정치적으로 탈핵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기술은 전문가들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심사항으로서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적인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원자력이란 이런 것이다"란 방향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및 고리 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에서 "최대 72만 명 사망, 인명피해와 파산 비용으로 1019조원, 사고수습비용 포함 시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보고서와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사고의 피해규모를 체르노빌 또는 후쿠시마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가정해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1970~1980년대에 만든 원전위험도 평가 9개 시나리오 중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위험성을 평가했다. 이 위원회가 올해 초 원전중대사고시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1970년대 시나리오보다 매우 낮다고 발표한 것은 무시됐다.

또 다른 문제는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부산, 울산 등 어느 한 도시를 향해 풍향이 지속적으로 이동한다고 예측했는데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최소한 수 일 간에 걸쳐 일어나며 원전부지 인근의 풍향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러한 예측은 비현실적이다.

올해 들어 원전의 잦은 고장과 비리, 은폐, 마약사건, 위조부품까지 터져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신문이나 매스컴에 원전 문제가 많이 등장 했을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격이다.

원전 정책은 각 나라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원전만이 예외지원으로 고려 될 것이고 경쟁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보안대책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원전에 대한 찬반이 갈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이 이뤄진다면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원전에 대한 과학적 논리도, 국민 이해 속에 국민 안심도 보장 받게 될 것이다.

이한수 기자



한 사람이 문화예술까지, 스포츠까지

더 풍요롭게
더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만드는 2가지 여가활동

무聊한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울한 일상에 행복을 찾으려면
예술과 스포츠 2분야의 취미를 각각 가져보세요.
1인 2기만 실천해도 행복의 달인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까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최대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계부채 문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과연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가계부채 공약의 핵심은 바로 '국민행복기금' 설치이다.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으로 1조 8천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반 채무자는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채 탕감 비율이 너무 높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방안도 약속했다.

한 사람당 천만 원 한도 안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를 10%대의 장기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다. 또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60%를 넘거나 40~60%인 채무자 가운데 특히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분매각제도'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집 주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최대 절반까지 집의 일부를 지분처럼 사주는 제도이다.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렌트푸어'에 대해서는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면 세입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고, 대신 집주인에게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렌트푸어'를 위해 세입자 대신 돈을 빌려줄 집주인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의 최대 무기로 들고 나온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결 공약, 얼마나 지켜질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명석 기자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반응..



한국과 미국의 보수, 진보 엇갈림 집권 현상이 20년째 이어지게 됐다. 미국에서는 진보 성향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한국에서는 보수 성향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박 당선인이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에서 구축된 한미관계를 연속성 있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 당선 확정 뒤 나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드 로이스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 등의 축하성명이 있었다. 오바마는 성명에서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처럼 '핵심관계'로 규정해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 언론도 처음에는 박 당선인을 '독재자의 딸'로 조롱했지만 지금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박근혜와 오바마 정부가 당장 조율해야 할 현안으로는 대북 정책이 있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권인수팀이 워싱턴에 와서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정책협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대북 게임 플랜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를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남북·한중 관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북미·남북 관계에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려운 만큼 한동안 한·미간 기존 공조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 회복을 희망하지만 전임자처럼 보수적 의제들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및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양국의 현안이다.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상 한국이 바라는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허용되기 어렵고, 국가적인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라 상당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전작권전환 이양 문제도 양국 새 정부의 핵심 이슈다.

그러나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박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지지자이며 워싱턴의 민주당과 공화당에도 잘 알려진 정치인"이라면서 "박 당선인이 미국 정부와 정책공조 및 관계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민혁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 22일부터 적용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조정이 완료됐다.

카드사들은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치고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로써 20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가고, 6만 개 가맹점은 오르게 된다.

업종별로 보면, 전국의 세탁소 만2천 가맹점 가운데 99.2%의 수수료가 낮아졌고, 화장품점과 미용실, 의류점의 95% 이상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가맹점 수가 58만3천 곳으로 가장 많은 음식점은 84.8%가, 병원은 6만1천 곳 가운데 73.1%의 수수료율을

이 낮아진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매출액 2억 원을 넘는 곳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율이 2%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이동통신사,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강행된다.

대학등록금과 4대 연금을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외 업종은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및 대중교통으로 한정됐다.

이정호 기자

날 말 퍼즐

1			4		5	
			4			
2	2				6	6
	3	3				
7		8		8		
7						
				9		

〈가로 퍼즐〉

1. 사자성어. 지나 깨나 잊지 못함
2. 자두나무의 열매. 살구보다 조금 크고 껍질 표면은 털이 없이 매끈하며 맛은 시큼하며 달콤하다.
3. 아미자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4. 사람과 가장 많은 영장류. 지능이 높으며 나무를 잘 탄다.
5. 4월의 순 우리말.
6. 외래어.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7. 식물이나 약품 따위를 치게 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한 상자 모양의 전자 제품.
8. 아내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이나 병적 증세.
9. 일가귀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히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서 짜낸 공 물을 끓인 다음 간수를 넣어 염기화하여 만든다.

3. 실제의 시험에 대비하여 그것을 본떠 실시하는 시험.
4. 두 개 이상의 블록 렌즈를 맞추어서 멀리 있는 물체 따위를 크게 정확하게 보도록 만든 장치.
5. 나무의 줄기나 가지 따위를 기로로 자른 면에 나타나는 둥근 테. 년마다 하나씩 생기므로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6. 유럽 대륙의 동부에서 시베리아에 걸쳐 있는 아주 큰 나라.
7. 육수 따위의 물에 만 냄뎌. 편육, 생채, 알고명 따위를 넣고 겨자와 초를 친다.
8. 자연수를 종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물. 무색투명하고 무미·무취하며, 화학 실험, 의약품 따위에 쓰인다.

〈세로 퍼즐〉

1. 오미자, 나무의 열매. 기침과 감증 또는 염과 설사를 멎게 하는 데에 쓰인다.
2. 콩으로 만든 식품의 하나. 물에 불린 콩을 갈아

* 완성된 날말퍼즐을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E-mail : kmm@kmm.pe.kr
메일에 반드시 성명, 연락처, 주소록 명시를 주세요.

“馬음이 훨 훨~”

아낌없이 주는 馬

우리 아이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승마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건강해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은 희망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 수 있도록 희망의 날개가 되어준 말.
마사회의 사회공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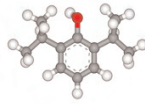
馬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재활승마(RD-Riding for the Disabled)란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활 치료방법으로 KRA 한국마사회는 2005년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RA 한국마사회

지식백과



프로포폴(Propofol)



올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해당 의사가 내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후 사망하여 사체를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 10월, 방송인 A씨가 마약류 투약혐의로 구속됐다. 그녀는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피로회복제로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고 A씨 외에도 이미 상당수의 연예인이 이 마약류를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처럼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은 폐쇄기가 붙어있어 물에 잘 녹지 않아 대두유에 혼합하기 때문에 그 탁한 색으로 인해 소위 '우유주사'라고 불린다. 피로회복에 좋고 식욕을 저하시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한동안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사실 '프로포폴'은 2009년 6월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며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잭슨의 사체에서 처사량 수준의 전신마취제가 검출됐다. 게다가 잭슨의 주치의가 잭슨의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6개월간 매일 50mg씩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은 과연 어떤 물질인지, 실제로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프로포폴은 1977년 영국의 화학회사인 ICI가 화학합성으로 개발한 정맥주사용 수면 유도제이다. 사용목적은 전신마취의 유도, 지속 그리고 시술목적의 수면마취용이며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진정에 사용되고 있다. 이약의 특징은 마취가 빠르고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프로포폴로 마취하면 보통 2~8분만에 깰 수 있다. 또 프로포폴은 간에서 대사돼 소변으로 빠져나와 몸에 남지 않는다. 현재 프로포폴은 50개 이

상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프로포폴을 맞으면 뇌 기능이 억제된다. 프로포폴은 뇌에 있는 GABA(gamma aminobutyric acid) 수용체를 활성화하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저지성 신경전달물질로, 투여하면 진정·수면 작용을 하게된다. 이때 뇌의 도파민 조절기능도 마비돼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몸 안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분비되는 도파민 양이 많다고 해서 마취처럼 중독되지는 않는다. 또한 마취제 잠이 든 경우 도파민이 주는 '도취감(euphoria)'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내시경이나 성형수술을 받을 때 마취용으로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중독될 염려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도취감을 느끼기 위해 마취되지 않는 정도로 양을 줄여 맞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오랫동안 프로포폴을 쓰다보면 결국 내성이 생기게 되고, 같은 효과를 보기위해 점차 용량을 늘려 맞게 되면 남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 프로포폴의 장점이자 단점으로서 프로포폴을 주입받은 환자가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 쾌적한 느낌(well being sense)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프로포폴 약물 의존성이 발생되기 쉽다. 프로포폴의 중독에 대한 연구는 1992년 미국 마취과학회로 최초로 실행되고 그 후에도 남용사례는 꾸준히 늘어났다.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환각제로 사용하는 이유는 말과, 앞서 밝힌바와 같이 체내에 작용하는 시간이 짧고 소변으로 배출되어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게 않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포폴은 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일까. 프로포폴을 소량 주입받은 경우 수면에 빠지만 이를 넘어서는 양을 주입받은 경우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마취제로 알려진 치오펜탈과 발생 빈도는 25~35% 정도로 비슷하지만 무호흡이 지속되는 시간은 프로포폴이 더 길다. 게다가 투여기간, 용량 및 함께 사용한 약에 따라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투여 후 의사는 환자가 호흡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되어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는 산소, 기도유지에 필요한 장비, 응급약이 갖춰진 상태이지만 중

역사이야기 2 세계7대불가사의의 제3탄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공중정원(空中庭園)" (Hanging Gardens of Babylon)



이름만 듣게 되면 가장 신비롭게 느껴지는 공중정원은 바빌로니아 수도 바빌론(지금의 이라크 남부)의 왕궁 안에 꾸며졌던 정원이다.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 있는, 즉 지구라트에 연속된 계단식 테라스 위에 만든 옥상 정원으로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물을 댔다.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반(半)전설적 인물인 삼무 라마트 여왕(그리스어로는 세미라미스이며 BC 810~783년에 아시아를 다스린 아다드 니라리 3세의 어머니)이 만들었다고도 하지만, 다음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진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BC 604~562 재위)는 바빌론의 왕이 되자 메디아 왕국의 키악사레스 왕의 딸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았다. 산이 많아 과일과 꽃이 풍성한 메디아에서 자란 왕비는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빌론에 마음을 두지 못한 채 항상 아름다운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왕은 왕비를 위하여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바빌론에 만들게 된다.

독자나 남용자의 경우 물레 혼자 맞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런 무호흡증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프로포폴을 과량 장시간 사용될 경우 프로포폴 주입 증후군(propofol infusion syndrome, PIS)을 유발하여 환자에서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아 중환자에서 PIS로 사망한 증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에피네프린 등의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이나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중환자에서 더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작가들은 공중정원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원의 계단식 테라스에는 돌로 발코니를 만들어 싸우고, 그 위에 갈래와 역청·납 등을 층층이 쌓아 관개수가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공중정원이 있었다는 뚜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독일 고고학자 로베르트 폴데바이는 바빌론에 있는 궁전 북동쪽 모퉁이에서, 독특하게 연이어 있는 방과 지하실의 기초를 발굴해 냈다. 그 한가운데의 지하실에 특이한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공중정원 기초의 일부인 듯하며 사슬 펌프로 물을 퍼올려 이곳에 저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은 아직 공중정원의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예전부터 공중정원의 위치로 알려져 있는 아무란의 언덕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빌론은 내외 이중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공중정원은 내성에 위치하며, '텔 아무란 이븐 알리'(Tel-Amuran-ibn-Ali, 추장의 언덕)라고도 불렸다. 바빌론의 폐허는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이 남아 있는데, 이라크 정부는 특히 공중정원을 집중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다른 불가사의보다 더 유명한 것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던 바벨탑과 로렌틴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공중정원의 신화가 혼합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중정원은 다른 불가사의처럼 인간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이뤄진 건물이라는데 더욱 매력 있다. 천하의 영웅 알렉산더가 자신이 죽을 장소로 바빌론을 지목한 것도 이해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9년에 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프로포폴 관리 시스템은 향후 남용자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프로포폴 의존성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KISTI<과학창> '프로포폴'의 진실

건강상식

겨울철 별미, '빙어'



빙어는 이름이 매우 다양한 어종 가운데 하나로서 '호수의 요정'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옛 문헌에는 동어(凍魚)로 기록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방언이 있는데 이 중 빙어와 공어(公魚)란 이름이 가장 많이 쓰인다. 빙어(氷魚)라는 이름은 조선말의 실학자인 서유구가 <전어지>에 '동자가 지난 뒤 얼음에 구멍을 내어 그물이나 낚시로 잡고, 입추가 지나면 푸른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얼음이 녹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얼음 '빙'(氷)에 물고기 '어'(魚)자를 따서 '빙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몸은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하다. 피라미와 비슷하나 훨씬 더 날씬하다.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며 등과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지느러미에는 무늬가 없이 투명하다. 몸의 양쪽 중앙에는 폭이 넓은 은백색 세로띠가 있다.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하며 3~4월에 모래나 자갈이 깔린 하천의 바닥에 산란한다. 한국의 전국 각 저수지에서 번식하는 빙어는 대부분이 1925년 함경남도 용흥강에서 도입된 것이다. 순수 토종 빙어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국내최고의 저수지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만 서식하며 낚시가 금지되어 있다. 유명한 서식지로는 소양호, 제천 의림지, 강화 장흥지, 춘천호, 함천호 등이 있다.

겨울 낚시의 인기종으로 호수의 얼음을 깨고 견지대나 소형낚시로 어획하거나 그물을 사용한다. 주 활동시기인 겨울철에 가장 맛이 좋다. 껍질이 얇아 터지기 쉬워 신선한 것을 통째로 요리하므로 갈솥과 비터민이 풍부하며, 육질이 연하고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는 담백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화나 튀김, 조림, 무침, 국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된다.

건강상식

발로 보는 건강



발은 제 2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인체기관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은 몸의 균형을 잡아 주고 체중을 지탱, 몸의 추진력을 내는 역할 등을 한다. 하지만 발에 이상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신체 부위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발에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발 관리 및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다. 발이 자주 붓는 사람들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발이 전체적으로 부어 있으면 내장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발등이 부어 있다면 심장의 이상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한다. 통증도 있다면 합병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 보는 것이 좋다.

평소에 자주 손발 저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발성 말초신경염'일 수도 있는데 말초신경염은 손발이 통증으로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손발 저림은 당뇨, 간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발가락 색깔이 누렇게 되는 사람들은 혈액 속의 독소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해서 신장이나 간장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엄지발가락 밑에만 유난히 응어리가 만져지면 갑상선을 의심

해봐야 한다.

발뒤꿈치에 못이 자주 박히고 티눈도 생기는 경우 생식기관의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남성은 성욕감퇴, 전립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 월경 이상이나 부인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볼이 좁은 하이힐을 즐겨신는 여성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무지외반증은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음으로 인해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발가락에 집중되는데 이로 인해 발가락 관절부위가 비갈쪽으로 비틀어져 발가락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발가락 관절이 자주 붓게 되고 뼈에 둘러싼 골막에 염증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걷는데 장애를 받게 되고 변형된 발 모양은 회복되기 쉽지 않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 효능

1. 노화 예방 : 빙어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셀레늄이 항산화작용을 통해 노화 예방에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성분으로 비타민E가 있는데 이보다 50~100배 정도 효과가 더 높다고 한다.
2. 빈혈 예방 : 빙어에 함유된 철분과 아미노산은 빈혈과 건망증, 어지러움증, 이명 등을 예방해 준다.
3. 골다공증 예방 : 뼈째 먹는 생선인 만큼 칼슘이 풍부해 어린이들의 성장발달 뿐 아니라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4. 소화 촉진 :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불량을 완화하고 이뇨효과를 가져온다.

www.yackcho.com

한방약초 아름다운 어울림
목화토금수가 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신비의 공간-목화토금수
서울의 중심 명동에서 우리 땅이 전하는 한방약초의 비밀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의 중심, 명동 1번지에서 12개 시·군의 우리 산천이 전하는 한방문화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체험하는 한방문화의 명품 공간입니다

- '보약' 개념의 한방이 아닌 건강생활식품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공간.
- 순수 국내 우리 약초의 우수성과 효능을 체험하는 공간.
- 바쁜 현대인들에게 쉼과 건강을 주는 도심 속 생활문화 공간.
- 몸과 마음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리프레시 공간.

한방약초광역연계협력사업의 메카-목화토금수

- 한방약초광역연계협력사업의 홍보·판매를 위한 공간인 인터넷 '목화토금수'를 개설, 운영.
- 우리 한방약초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기술개발 및 유통, 마케팅 활성화 추진.



문의전화 : 02-6361-8250



한글농어촌공사와 12개 시·군의 한방약초광역연계협력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한방약초 제품 판매·전시공간의 브랜드입니다.

한방약초광역연계협력사업단





전남 '순천' 해돋이 여행

화포해변 일출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화산리

우리는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다진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으로 해돋이만큼 좋은 여행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연히 빛나는 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떻게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까', '앞으로 어느 길로 갈까' 하는 것들을 해돋이 여행에서 품는다.

해돋이 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동해다. 하지만 남도의 끝자락 전남 순천은 장엄한 해돋이와 환호한 해돋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다. 'ㄷ'자로 생긴 순천만의 아랫부분에 위치해서 바닷가에서 멋진 해돋이를 맞이할 수 있는 장소다. 사실 순천만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동쪽의 여수반도와 서쪽의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여지만의 일부다. 호수 같은 만으로 광활한 갯벌과 구불구불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이 산과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이다.

여행정보

화포해변의 해돋이는 동해의 정동진, 추암, 간절곶 등과 다르다. 동해의 해돋이가 어둠 속에서 황금빛을 내며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반면 화포해변의 해돋이는 하늘이 환해지고 더 이상 해돋이를 기대하지 않게 될 즈음 해가 산 정상에서 고개를 내린다. 이즈음 시계는 오전 8시를 훌쩍 넘어선다. 해가 늦게 뜨는 만큼 다른 곳보다 천천히 준비해서 길을 나서도 된다. 해돋이의 장관이 끝나고 나면 확산해안길을 따라 가며 겨울 바다의 진경을 품에 안아도 좋다.

순천드라마촬영장

순천만의 정취를 모두 누린 뒤에는 드라마 속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순천드라마촬영장으로 향한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 '제빵왕 김탁구' 등의 드라마와 '마파도', '남은 먼곳에' 등의 영화를 촬영한 세트장이다.

촬영장은 크게 순천읍, 서울 번두리, 서울 달동네 세트장으로 나뉜다. 순천읍 세트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 소도시 읍내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변화한 순천시를 만날 수 있다. 재미난 곳은 달동네 세트장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1960년대 중반의 서울 달동네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순천문학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가면 제일 먼저 둘러야 할 곳이 순천문학관이다. 순천문학관은 공원 구역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 게다가 별도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원 주차장에서 20여 분을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공원 안에서 갈대열차를 타고 가는 게 편리하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친절함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좋다.



순천문학관은 순천 출신의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과 소설가 김승옥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소박해 보이는 초가는 각각 정채봉관, 김승옥관으로 꾸며졌다.

정채봉관에는 작가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품과 작품, 암자로 흘러온 고아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오세암'에 대한 설명이 세세히 적혀있다. 김승옥관에서는 작가가 유년기를 보냈던 순천의 공간을 재구성해 탄생시킨 '무진기행'을 만나게 된다. 작가는 '무진기행'에서 순천과 순천만 연안 대대로 앞 바다와 갯벌에서의 체험을 창작의 모티브로 삼았다.

〈당일여행코스〉

화포해변→순천드라마촬영장→순천문학관

축제



개최기간 : 2012년 12월 28일~2013년 1월 6일

개최장소 : 인제군 북면 원동리 앞강

문의 : 내설악강변축제위원회 033-462-2010

주요행사 : 식전행사, 개회식, 얼음조각퍼포먼스, 댄스 공연, 연극대공연, 연날리기대회, 얼음축구대회, 얼음썰매장, 눈썰매장, 팽이치기, 제기차기, 얼음축구, 스케이트장, 얼음낚시, 솜이맨션잡기, 율놀이, 황태체험, 인간열린, 축구공차별기, 빙상경보, 얼음(자전거)썰매, 사랑의썰매경주대회, 막걸리마시기대회, 달고나체험, 감자고구마구워먹기, 가래떡구워먹기, 반합라면끓여먹기, 떡메치기, 뽕튀기, 옥수수구워먹기, 목공예체험, 눈조각전시, 눈꽃나무, 홍보전시관, 향토음식점, 농특산물판매장, 각설이 장터

2013년 겨울 내설악강변축제가 오는 28일부터 10일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동 앞강에서 열린다. 내설악 강변축제장에서는 매일 솜이 등 뽕수성 물고기를 가득 넣어 놓으니 물 반, 고기 반이라 온 가족이 웅기증기 얼음판 위에 모여 앉아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더욱이 싱싱한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 때문에 축제장에는 화센터와 구이터가 준비되어 있다.

내설악 겨울강변축제

또한 파파파파 추억을 굶는 먹거리마당이 펼쳐진다. 엄마 아빠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감자, 고구마, 가래떡, 옥수수를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고 어린이들은 달고나로 뽑기를 할 수도 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즐겼던 반합라면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축제는 얼음관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나가는 얼음썰매, 하루 온종일 타도 질리지 않는 눈썰매,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얼음축구와 눈사람만들기, 인기만점인 눈싸움장을 비롯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겨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험마당에는 목공예, 새해기원문 올리기가 준비되어 있고 전시마당에는 다양한 눈조각과 눈꽃 나무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낸다.

신종국 축제위원장은 "다채로운 체험으로 가족, 연인, 친구들 간 겨울철 내설악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카메이전시

서울 → 양평 → 춘천 → 인제 → 원통 → 행사장

강릉 → 양양 → 한계령 → 원통 → 행사장

경춘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 → 동충천 IC → 인제 → 원통 → 행사장

*시외버스(이)전시

동서울 → 원통(2시간 10분소요) / 동서울버스터미널 T.(02)446-8000

상봉동 → 원통(2시간 10분소요) / 상봉동버스터미널 T.(02)435-2122

속초 → 원통(40분소요) / 속초시외버스터미널 T.(033)633-4230

양양 → 원통 / 양양시외버스터미널 T.(033)671-4411

스포츠

갈색 폭격기 '차범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차범근. 그는 경기도 화성시 출생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할 당시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의 로마자 표기를 부르기 어려워 차범(Tscha Bum)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빠른 공간점투와 공중전에 강한 면 때문에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당시 유럽 최강이었던 헝가리를 누르고 첫 월드컵을 제패하며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한 서독은, 그 무드가 이어지면서 1963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분데스리가를 창립한다. 차범근이 진출할 당시 분데스리가는 유럽 최강의 리그였으며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어하는 무대였다. 분데스리가를 거치면 유럽 시장 어디든 갈 수 있었을 정도로 그 위상은 실제로 대단했다.

1976년 10월 차범근은 공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치고 1978년 12월에 독일 분데스리가 SV 다름슈타트로 이적하였지만, 병역 관련 문제로 계약이 파기된다. 잠시 고국에 다녀온다고 해놓고 기한 내에 차범근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름슈타트가 계약위반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당시 그는 공군팀 전력강화를 꾀하던 총장의 권한으로 2년뒤 재대를 약속받고 공군에 입대한 뒤, 약속된 78년 12월 복무기간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특별휴가를 받아 독일로 떠나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 소속으로 1경기에 출전해 2어시스트를 하였다. 그러나 군의 입장변화로 출국 11일만에 다시 귀국 복귀해서 79년 5월31일 만기제대를 하게 된다. 병역 관련 문제를 해결한 1979년 7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스카웃된 후 곧바로 1980년 팀을 UEFA컵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팀이 DFB-포칼 우승컵을 드는데 공헌하였다. 1983년 7월에는 바이어 04 레버쿠젠으로 이적하여 1988년에 다시 한번 UEFA컵에서 우승한다. 이 우승으로 차범근은 각기 다른 두 팀에서 UEFA컵 우승을 차지한 9번째 선수가 된다.



도심형 대형 재난영화 '타워'

개요 드라마 한국 121분 2012.12.25 개봉

감독 김지훈

출연 설경구(강영기), 손예진(서유희), 김상경(이대호)

등급 [국내] 12세 관람가

영화 '타워'는 '불'을 소재로 한 한국형 재난영화로 영화 '해운대'의 설경구가 출연하여 '해운대'에서는 물과 싸웠지만 '타워'에서는 불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으로 나온다. 이 영화는 1971년 실제로 일어난 참사인 명동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을 소재로 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1974년 미국 '존 길러인' 감독의 '타워링'이라는 영화로 연출되었으며 가스폭발로 인해 일어난 화재사건 중 인명피해가 크고 특히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사건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최악의 화재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타워'는 108층 초고층 빌딩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단순 자연의 변화에 따른 재앙에서 벗어나 초고층 빌딩에서의 화재라는 현실적인 소재와 함께 화재의 현장을 실사 촬영과 컴퓨터그래픽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CG만큼 화려한 캐스팅으로 볼거리를 선사한다. 주연 설경구, 손예진, 김상경 등의 탄탄한 연기력과 차인표, 안성기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해 불과 맞서 싸우는 장면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을 펼쳐 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올해 극장가 마지막을 장식할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타워'는 오는 크리스마스 개봉 예정이다.

1989년 현역에서 은퇴한 차범근은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리그 경기에서 98골을 득점하는 기록을 남겨 기존의 네덜란드의 빌리 립렌스의 기록(92골)을 경신하고 리그 외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통산 308경기에 출장하여, 1977년 덴마크 Ole Björnmoose가 수립한 323경기 이예 두 번째로 많은 출장기록을 세운다. 차범근이 1985-86시즌에 기록한 17골은 지금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아시아 선수 출신 선수 중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독일 분데스리가 10시즌 동안 단 한장의 옐로카드만 받았을 정도로 투철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꺼지지 않는 차범근의 독일 신화'는 어느 독일 시인의 시집에 쓰여진 한 구절로 요약된다.

차범!

나는 너를 낳아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 코리아를 향해

경의를 표한다...

韓國自動車新聞(KOREA MOTOR NEWSPAPER)

發行人:洪明熙/編輯人:洪明熙/印刷人:(株)아이피디/登錄番號:沙上라2011-1

代表番號:1566-9901(案內)/Internet住所:www.kmn.pe.kr/間別:月間,有價紙

住所:釜山廣域市 沙上區 毛羅洞 728-10番地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문화생활비 5만원 받으세요

- 문화카드 선착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도서, 영화, 공연, 음악 무료 및 할인 구입

02)760-4673, 4674 www.문화바우처.kr

문화바우처

2011년 8월 10일 한국자동차신문(KMN)이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은 2011년 8월 10일 설립된 신문사로서,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부설기관입니다. 모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영리 신문사로, 수익금 전액을 신문간행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우리 업계가 하나로 되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현재 국내 5개 완성차 및 8,500여 자동차부품협력사와 종사자 약 80만 명 및 50만명 이상의 자동차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완성차 및 부품협력사의 동향, 자동차 신기술 정보, 대정부 정책 제언 등의 소식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기사는 물론, 생활의 팁, 여행지, 운동정보, 역사이야기 등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우리 자동차업계를 위한 신문입니다. 항상 자동차업계만을 생각하고 자동차업계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자동차업계를 든든히 지원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알차고 진실한 내용을 신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자동차업계를 발전시키는 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업계 소통과 소식 그리고 대외 및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한 우리업계의 한 목소리와 자동차업계 현장의 기술전문기자들을 통한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신문 (KMN)
KOREA MOTOR NEWSPAPER